

저는 회사나 레스토랑, 버스나 전철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지 않게 하는 규칙을 만들기 전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 줄 영향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담배'하면 남자가 피우는 것이라고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여자들도 많이 피우고 있긴 하지만, 일본에서처럼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담배를 피는 여자는 드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을 나와서, 고등학교때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중학교 때부터 남자 아이들은 화장실에서 담배를 씹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화장실은 1차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너구리집'이 되어 버립니다.

여학생들도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배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긴장감을 풀기 위해, 즉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담배를 핀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담배를 핀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담배를 피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의 모습을 흉내 낼 수도 있습니다. TV나 영화에서의 배우가 담배를 피우는 연기는 사춘기인 학생들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남자배우가 담배를 피우면, 그것을 본 남학생들은 자신도 담배를 피우면 멋있게 보일거라고 생각하여,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남학생들은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배운 여학생들은 그때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지만, 대학에 입학해서도, 주위의 시선 때문에 숨어서 담배를 씹니다.

누구에게나 담배를 필 권리가 있는 것이라면, 왜 여자들은 앞에서 피지 않고, 화장실에서 피는 것일까요?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피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기보다는, 누구나 담배를 필 권리가 있다고 말하기 보다는, 누가 담배를 피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